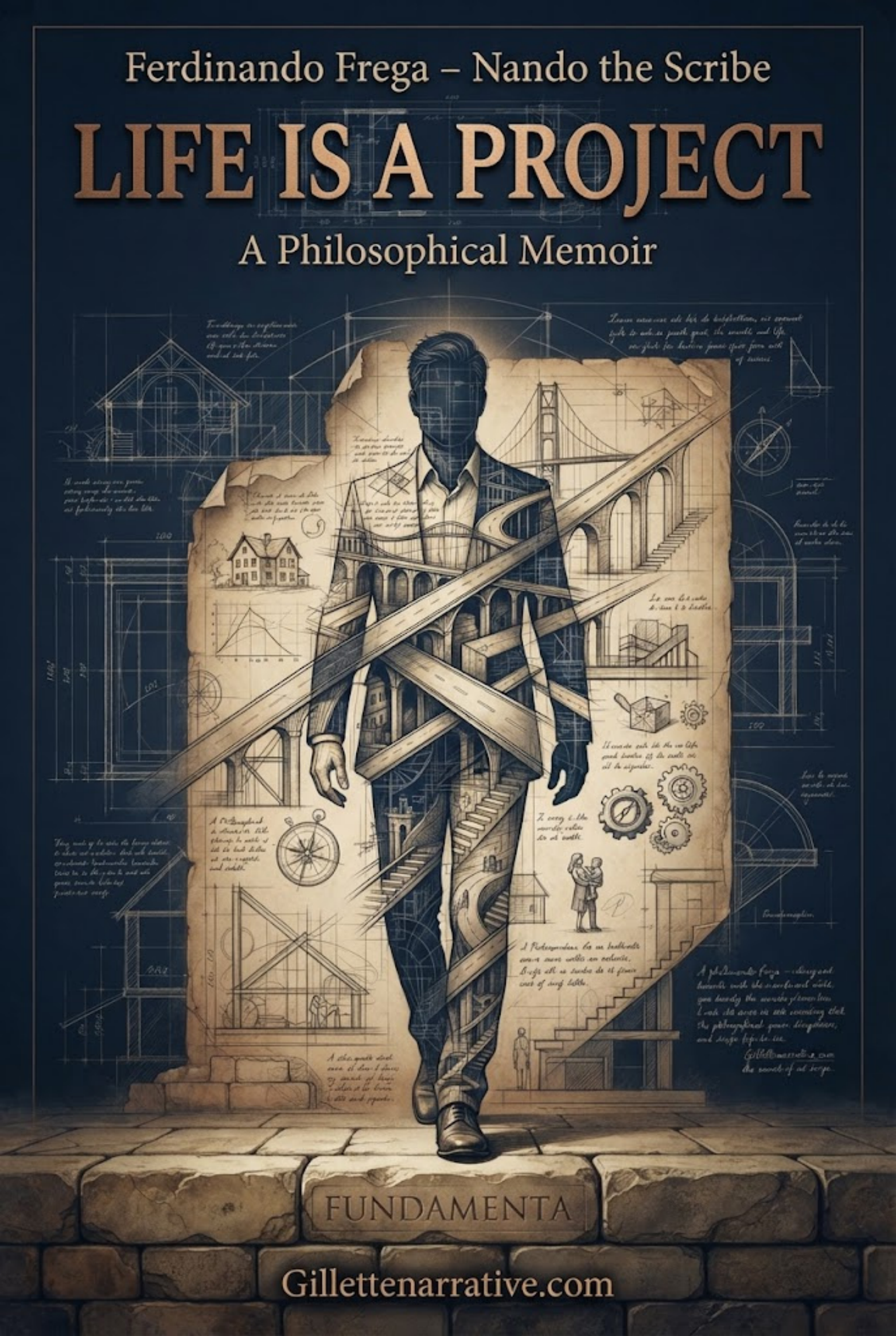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LIFE IS A PROJECT

A Philosophical Memoir



Gillettenarrative.com

삶은 GILLETTE 프로젝트다

GILLETTE AUDIO — NANDO THE SCRIBE — GILLETTENARRATIVE.COM

건축과 사회공학에는 규칙이 하나 있다: 무엇을 짓고 싶든, 출발할 토대가 없으면 결코 설계를 정할 수 없다.

삶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건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설계다 — 불완전함을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척도로 좇는 공학 안에서.

오늘 나는 어느 재활 클리닉 안에 있었다. 많은 환자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앗아간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거기 있는지 곧바로 이해했다.

나는 인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적도록 선택된 것이었다 — 환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고 왜 고통받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통이란 평범한 행동을 빼앗기는 것이다. 어느 날 그것들은 그냥 취소된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당신의 삶은 하나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값은 결코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아는 환자들을 만났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수업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런데 무슨 수업인가?

나는 마음만은 젊은 채로 남아, 다른 이들이 건너갈 채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왜? 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했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지러웠다 — 함께한 순간들의 기억이 겹겹이 쌓였고, 모두가 Nando를 그의 별명으로 기억했다: 자기가 칠 공을 미리 말하고 — 그것을 벽에 걸어 두는 남자.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해내는 남자. 매번, 빠짐없이. 어떤 것도 결코 공상으로 남지 않았다.

딸은 내가 늙어 가는 것을 보면 나를 정신과 클리닉에 가둬 버리겠다고 했다. 내 대답은 간단했다: 여자들로 가득한 곳을 찾아 달라고 했다. 내가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일 테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일이었다.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병은 이렇게 말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었다: 나는 여기 있었다.

결국 남은 해석은 하나뿐이었다:

그래, 나는 정말로 그를 알았다. 그는 당신이 기대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Nando였다 — Gillette의 그 사람.

Nando